발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광장

www.council.jeju.kr

Vol. 108
2024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전화 064-741-2285 발행일 2024. 04. 26. ISSN 2671-9754

“장애인, 행복한 삶 누리는 환경 조성 지원”

봄을 기대해 초록이 힘을 키우는 사이로 목향장미가 노란 그늘을 드리운다. 마음이 끌리고 눈이 간다. 한 해를 시작하고 여러 일이 이어지면서 내 시간만 빨리 가고, 모자라고,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닌지. 봄을 즐기지 못한 채 그냥 보내버릴라, 함께 하자고 자연이 곁을 내준다. 조금 쉬어가도 좋으니 말이다.

장애인의 날 맞아 현장 소통
직업재활시설 에코소랑 방문
장애인복지관장 간담회 개최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난 4월 18일 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한 데 이어 도내 장애인복지관장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직업 재활의 중요성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경학 의장은 이날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에코소랑을 방문했다.

에코소랑은 중증 장애인 고용을 통해 직업 재활 서비스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고택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오희경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장과 함께한 방문에서 장애인들의 취업 지원 상황 등을 살폈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경숙 에코소랑 시설장은 “장애인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사업장 운영비가 많이 들어 걱정이 많지만, 많은 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장애인 근로자들이 즐겁게 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에코소랑 같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에코소랑의 다양한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장애인의 능력이 개발되고 취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의회에서도 장애인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지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이어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도내 장애인복지관장들과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경희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고현수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 양예홍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장, 문성은 제주도농아복지관장, 김정옥 우리복지관장, 윤보철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과 함께 강미영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특수교육 교사 부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관리 인력 확충 △장애 유형별 돌봄 인력 충원 △영양사, 조리사 등 필수 인력 확보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 등이 주문됐다.

김경학 의장은 “장애인 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며 “장애인 분들의 삶을 개선하고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지면안내

2 제426회 임시회
3 주요 이슈
4~5 생생 의정 활동
6~10 도정·교육행정 질문
12 사무처 소식

QR코드를 스캔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월간 「도민광장」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민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 이뤄내야”

제426회 임시회

김경학 의장 개회사 통해
민선 8기 후반기 성과 주문

“외국인 방문객 여행 패턴 변화
섬세한 맞춤형 전략 마련 필요”

“세월호 참사 10주년,
예방 중심 안전관리 필수적”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난 4월 15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에서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다”며 “전반기는 제주도정이 대전환을 위한 기틀을 다져왔다면, 후반기에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올해 들어 중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외국인 방문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제주 기점 해외 항공노선 확대와 함께 크루즈선 증편 운항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외국인 방문객의 여행 패턴은 2019년에 비해 많은 변화를 보였다”면서 “달라진 여행 패턴에 대응하고, 제주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섬세한 맞춤형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교통과 쇼핑의 편의성 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개발, 물가 안정, 직항 노선 확대 등에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김경학 의장은 또한 “제주도에서 이달부터 매월 셋째 주를 ‘1회용품 제로 주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제주도 차원의 노력”이라며 “이번 달만이라도 도민 모두가 1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나무 심기를 실천하여 청정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경학 의장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주년이 됐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지 10년이 흘렀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는 여전히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이어 “해상에서는 어선 전복 및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며 “제주가 국제안전도시라는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장애인의 날에 즈음하여

2024년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교육과 복지현장에서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특수교사·장애인 시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장애인은 돌봄의 사각지대 없는 동등한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보육과 교육환경, 일자리, 주거 등 자립 기반을 갖추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수교육 전문인력은 절대 부족하고, 공공형 장애인 일자리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동할 권리, 탈시설과 자립생활의 권리, 노동할 권리 또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편견과 차별의 시선을 거두고, 일상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장애인의 권익증진은 물론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4월 20일

가축분뇨 처리시설·양돈농가 방문

김경학 의장, 지난 4월 5일
악취관리 점검·애로사항 청취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난 4월 5일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과 우진축산을 방문해, 제주시 가축분뇨 처리 상황과 양돈농가의 악취 관리 상황 등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에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 양용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민의힘, 한림읍), 김승준 농수축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이 함께했다.

우진축산 현장 방문에서 김경학 의장은 "양돈산업은 포기할 수 없는 제주의 주요 산업이지만, 현재 악취 등과 관련해 주민들의 우려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양돈농가에서는 냄새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행정에서도 악취 저감을 위한 지원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는 "작년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로 일 최대 370톤 처리할 수 있었지만, 제주시 1일 가축분뇨 발생량 2000여 톤에 비하면 축산환경 인프라가 아주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시에서 공동자원화시설을 확충해 제주시 가축분뇨 발생량의 93% 이상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만큼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426회 임시회 개회

도정·교육행정 질문 및
상임위 위원 선임 처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42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4월 10일 아라동을 선거구 보궐선거에 당선된 양영수 의원(진보당)의 선서와 당선 의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상정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한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5일간 실시했다.

아울러 의원발의 조례안 15건, 도지사 제출 감사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의안 19건과 교육감 제출 의안 1건을 포함한 총 35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김경학 의장은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역 현안을 점검해 올바른 정책과 방향 제시로 민생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첫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4월 2일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 등 제정·전부개정돼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조례 15건에 대한 입법평가가 이뤄졌다.

또한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검토·평가를 위해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2명을 추가 위촉했다.

이번 추가 위촉은 입법평가 대상 조례 및 관련 법령 등 검토 내용이 방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법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른 것이다.

김경학 의장은 "도의회 입법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영역도 넓어지고 있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장기적인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를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평가는 조례의 시행 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등에 대해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7년도부터 시작됐다.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통해 조례 578건에 대해 입법평가가 이뤄졌다.

제주도의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인

아라동을

양영수 의원

△진보당 △4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전)아라동 주민자치위원 (현)의료공공성강화 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감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구성

위원장에 양병우 의원
부위원장 현기종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4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강기탁 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서 제주특별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감사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심사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을 추천받고, 추천받은 6명을 포함한 7명이 선임됐다.

위원장에는 양병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정읍)이, 부위원장에는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이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강충룡(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양경호(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하성용(더불어민주당, 안덕면)·김승준(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정이운(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 의원이 선임됐다.

인사청문회는 제426회 임시회 회기 중인 4월 25일에 개최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된다.

한편 감사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인사청문 대상 중 유일하게 제주특별법 제131조제5항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만 임명할 수 있다.

“청년 인재 유입시키는 마중물 역할 해주길”

농수축경제위원회, 4월 23일
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 찾아
공공형 거점 오피스 시설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 표선면)는 지난 4월 23일 제426회 임시회 기간 중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에 위치한 ‘워케이션 오피스’와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를 방문했다.

‘워케이션 오피스’를 방문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제주 워케이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공공형 거점 오피스의 시설 인프라를 점검하고, 연계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 받았다.

위원들은 “제주도정이 목표로 하는 ‘제주 워케이션 인구 10만 명 달성’을 위해 기업의 유치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인프라 확충과 워케이션 통합 플랫폼 구축 등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도에서 운영 중인 공공 거점 오피스 3곳과 민간업체에서 운영 중인 워케이션 오피스의 활성화가 궁극적으로 제주로의 기업 이전으로 연결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에서는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입주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호 위원장은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경쟁력 있는 청년 창업자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가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 인재들을 제주로 유입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선택 아닌 필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는 지난 3월 29일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지원 △중복지원 금지 △지원 중단 및 환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회는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좌장을 맡았고, 설경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국장, 박재석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사무처장, 최지연 ㈔제주아이특별한아이 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설경란 사무국장은 “대소변 흡수 용품은 중증 뇌병변 장애인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으며, 평생에 걸쳐 사용하는 필수품목이지만 일회용품이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재석 사무처장은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배변 활동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최지연 이사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들도 더 편안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하영 의원은 “장애인과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이 많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관심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경미 위원장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은 장애인의 건강하고 자립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제주서 열려

4월 25일 제주 썬호텔서 개최
6건 제안 안건 심의·의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남원읍)가 주관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가 4월 25일 제주 썬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기회에는 김경학 의장을 비롯해 오영훈 지사, 김광수 교육감도 참석하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포함해 5개 시·도의회에서 제안한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안된 안건에는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제주 해상운송 공적 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도서·산간 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의안’, ‘농민·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민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서울특별시의회 제출) 등이 포함됐다.

송영훈 위원장은 “이번 회의가 농민3법 제정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의 결의를 다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년정책의 개선 시급”

4월 14일 제주청년집담회서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이 기획·추진한 ‘제주청년정책 재설계 워킹그룹’의 ‘제주청년집담회’가 지난 4월 14일 제주한라대학교에서 청년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제주청년정책 재설계 워킹그룹’은 지난 1월 제주청년들의 정책효능감과 체감도 향상을 목적으로 제주청년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출범됐다.

참석한 청년들은 청년참여기구에 참여 경력이 있는 청년들의 활용 방안, 청년제안사항의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한권 의원은 “이날 행사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이는 청년정책의 개선 시급성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특수교육학과 설치 필요, 공감대 형성

사회보장특별위원회
관계자 간담회 개최

지난 4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주최로 열린 '제주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설치 논의 간담회'에 참석한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 등은 제주도 내 특수교사 양성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도내 특수교육학과 설치 필요성 △특수교육학과 신설에 필요한 교육부 승인 절차 및 추진 방법 △현재 특수교육학과 설치 추진상황 △지역 내 특수교원 양성 관련 기관 협력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각 기관 관계자들은 장애 학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교사 양성 필요성에 동의하며, 제주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신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지홍 위원장은 "도내 대학에서 특수교사를 양성할 수 없다는 것은 제주도 내 복지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수학과 신설이 꼭 필요하다. 지역 내 필요성과 교원양성수요 등에 대해 내부 논의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부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보 위기 대응, 평화 체제 구상

정민구 의원, 토론회서
비핵지대화·방향성 모색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이 지난 4월 19일 대회의실에서 '제주비핵지대를 위한 평화선언 준비'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비핵지대화와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대훈 전 성공회대 평화학 교수가 '세계 진영 대결의 시대: 제주평화체제 구상하기',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학 정치·국제관계학과 교수가 '동북아시아의 안보위기와 그 대안: 제주비핵지대와 평화체제'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또한 강우일 전 천주교 제주교구 교구장 주교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임문철 신부, 조성윤 전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양동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 등이 지정 토론에 나섰다.

정민구 의원은 "제주는 2005년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서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며 제주도가 스스로 평화를 선언하고, 스스로 핵의 장막에서 벗어나는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주의 평화체제를 구상해 '제주비핵지대'가 평화의 섬 제주의 구체적인 모습 중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요 교육정책 현황 분석 자료집」 나와

교육제도 강화 방안 모색
"과제 발굴 활용 자료 기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를 인지하고, 교육제도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4년 주요 교육정책 현황 분석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분석 자료집은 △2024년 제주교육의 도전과 과제 △2024년 주요 교육정책 현황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교육재정 현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관련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2024년 주요 교육 정책 현황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행정의 변화 및 대응 방안 탐색, 학교복합시설 구축 및 활성화 방안, 고교학점제와 학교 수업체제 변화, 유보통합과 제주유보통합추진단의 역할, 제주 특수교육 현황 및 교육환경 개선 방안, 제주 교육특구 지정 및 향후 과제 등을 다뤘다.

김창식 교육위원장은 "이번 정책자료집은 변화하는 교육 제도 및 정책 현황에 대한 과제를 공유하는 장이자, 향후 지방 교육자치 과제 발굴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 대응 전략 모색

재정경제포럼 세미나 개최
인센티브 설계 필요 등 주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재정경제포럼(대표의원 박호형, 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지난 3월 27일 소회의실에서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장을 강연자로 초청, '기회발전특구 정책과제와 대응 전략'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주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이 발굴·선정될 수 있도록 세심한 추진 필요 △기존의 제주투자진흥지구 성과와 경험을 살펴 기회발전특구 정책에서 기대하는 성과 창출 필요 △특구 지정 이후 제주도가 지속적인 산업육성을 할 수 있도록 역량 구축 필요 △제주도 실정에 맞는 기회발전특구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설계 필요 등의 의견이 나왔다.

박호형 대표의원은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추진을 위해 방향 설정을 명확히 하고 계획성 있는 업무 추진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운영학교 발전방안 모색

고의숙 교육의원, 우도초·중서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지난 4월 2일 우도초·중학교에서 우도초·중학교 관계자를 비롯해 마을 리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통합운영학교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 주민들은 "학교가 마을의 중심역할을 하며 주말에도 아이들과 학부모가 찾아올 수 있었으면 한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활용도가 높은 학교 공간을 조성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의숙 의원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학교복합시설 안착을 위해 도교육청과 지자체 간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제도개선 등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 질문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지난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열린 가운데, 16~18일까지 3일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 질문이 진행됐다. 16일에는 강경문·강상수·김승준·강동우·이정엽·강하영·강봉직·홍인숙 의원이, 17일에는 고태민·고의숙·한동수·이상봉·송창권·이승아·박호형 의원이, 18일에는 김창식·한권·양병우·정이운·하성용·원화자 의원이 도정 질문을 이어갔다. 자세한 도정 질문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전자회의록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다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양쓰레기 줄이기 정책의 필요성은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 어선 내 1회용품 및 생활쓰레기 정책의 필요성은. 플라스틱 줄이기 일환으로 삼다수 대용량 용기 출시에 대한 견해는. 환경보전분담금의 향후 추진 의견은. 용천하천수 및 도수관로 활용 방안의 견해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문제 및 해법은. S-BRT(슈퍼-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 방법 및 향후 계획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추진을 위한 협력과 지원 방안은

강동우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동부)

▲ 제주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추진을 위한 제주도의 협력과 지원 관련 교육발전특구추진단을 상설기구로 조직화하는 방안은. 제주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인 '인구소멸'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인구정책 새판짜기에 대한 입장은. 학교 수영장의 공공 개방에 대한 의견은. 해양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 방안은.

관광약자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은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정방·중앙·천지·서홍동)

▲ '제주 관광형 UAM' 상용화로 관광약자 접근이 가능한가. 초고령화시대의 무장애관광으로서 한라산케이블카 검토 의지는. 서귀포의료원 부설 산후조리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통합에 대한 견해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은. 서귀포항 활성화 방안은. 수소생산시설 가동계획 및 민간 보급계획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 상황은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 방향과 계획은. 주민의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도정의 입장은.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국토교통부 주도의 5자협의체 또는 원탁회의 운영 제안에 대한 도정의 입장은. 서귀포시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활용 방안은.

무기질비료 농가 지원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은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

▲ 무기질비료 농가 지원 감소에 따른 부족 예산 추가 반영 요청계획 및 지방비 확대 지원 방안은. 무기질비료 공급축소 정책에 대한 견해는. 매년 감소하는 농촌인력 안정적 확보를 위한 도의 정책 방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확대 방안은.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대한 대책 방안은.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설립 견해는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설립 축소 결정 재고에 대한 견해는.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확대 이전에 대한 입장은. 한라산 탐방 예약 부도를 활용해 도민에 한라산 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은.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견해는. 읍면지역 4개 치안센터 폐지로 인한 주민치안 서비스 확보 방안은.

도내 청년농업인 육성 추진 현황은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

▲ 무기질비료 공급량 감소 사유와 예산 확보 상황은.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추진 계획은.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추진 전략은. 고령화 등에 따른 농기계 수요급증에 따른 대응 방안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통한 농업경영 안정화 대책은. 민간사업 또는 공공사업 시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사항 이행에 대한 견해는.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은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 제주도 소득불평등 심화 관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은. 금융포용기금 조성 및 활용 계획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 대책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진행 상황 및 행정안전부 설득 대책은. NLCS 제주국제학교관련 조성원가 매각 추진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은. 청년 일자리 관련 기회발전특구의 활용 및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방안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방안은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

▲ 민간토지 임대 방식을 활용한 생활인프라 신설에 대한 견해는. 도외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및 유치 이후 후속지원 사항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세분화, 특성화된 전지훈련 계획 마련은. 이전기업과 지역주민 상생을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한 견해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무장애 관광지를 위한 실행 전략은.

버스중앙차로제 추진 현황 및 계획은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

▲ 버스중앙차로제 추진 현황 및 계획, 성과는. 버스중앙차로제 추진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내용 및 결과는. 사회복지사 인권 침해 대책 방안은. 권익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견해는. '노동존중 제주 실현'을 위한 노동전담 부서의 기능강화 추진 여부에 대한 견해는.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추진 개요 및 추진 상황은.

들불축제 추진과정에 대한 견해는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

▲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서 기존대비 풍력발전가능 면적 11.6배, 발전용량 5.8배 계획의 타당성 여부는. 풍력발전 가능 면적 중 각종 사업배제구역에도 입지 가능으로 판단한 이유는.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 결과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위원회' 미심의, 지역 주민과의 불소통 등에 대한 견해는.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 개선 방안은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

▲ 도정이 파악하고 있는 공항소음피해 주민들의 고충은. 야간 이착륙 제한 시간 적용에 대한 도정의 의지는. 서부권 종합사회복지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등록, 미등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바다 자치권 확보를 위한 추진 의지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신중론에 대한 견해는.

학교복합시설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은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 학교복합시설 구축과 지역발전과의 연관성에 대한 견해는. 주말거점돌봄센터 '꿈낭'을 통한 학교복합시설 활용에 대한 견해는. 학교복합시설 활용 우수사례 발굴 통한 확대 필요성은. 제주영지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입장은. 제주형 친환경급식유통센터 건립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와 향후 계획은.

탄소흡수원 현황 및 전망에 따른 정책 방향은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

▲ 지역 내 탄소흡수원 분포 현황은. 탄소흡수원 관리·보전·확대 등에 관한 계획은. 제주 관광의 경쟁력 강화 전략은. 해외 통상사무소 개설 현황 및 실적은. 최근 10년간 할망바당 조성사업 및 해녀 소득 현황은. 도서지역 유류세 인하 또는 물류비 지원 대안은. 육상 및 해양에너지 개발 부담금 신설 의향은.

신규해녀 양성 위한 제주도의 대응 방안은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추진 경위는. 관광사업체를 통한 징수 방법 및 시기에 대한 견해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민·의회 의견 수렴계획은. RIS 핵심 보직자 변경에 따른 관리 공백 해소 방안은. 문화예술 위기 회복을 위한 계획은. 신규해녀 어촌계 진입장벽 해결 방안은. 신규해녀의 안정적 소득 보장 대책은.

유보통합 추진 위한 도-교육청 간 협력관 파견에 대한 견해는

정이운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

▲ 원활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간 협력관 파견에 대한 견해는. 대정지역 돌봄 지원 확대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활성화 지원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지역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 일환으로 자치경찰과 국가 경찰 간의 협력 체계를 통해 범죄 예방팀 구성·운영 방안에 대한 견해는.

특색 있는 인구정책 사업 정책 발굴은

김창식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 출산 장려 문화확산을 위한 출산육아지원금(첫째부터) 확대 방안에 대한 입장은. 제주특별자치도정만의 특색 있는 인구정책 사업 발굴 의지는. 달빛 어린이 병원 운영시간 확대 방안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정의 방향은. 고교과정과 연계한 대학교육 개편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시범바다목장화 활성화 방안은.

국제학교 매각에 따른 도의 대응 방안은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

▲ 제주형 행정체제 관련 추진 상황은. 제주국제학교 매각에 따른 도의 대응 방안은. 도내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 방안은. 관광산업과 연계한 제주형 경관보전 직불금 확대 도입 견해는. 토양 생태환경 보전사업 추진에 따른 월동채소 파급 효과는.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사업 관련 제주도의 향후 방침은.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 방안은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

▲ 민선 8기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 및 청년참여기구 운영 내실화 방안은. 행정의 청년감수성 제고 방안은. 속도감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한 도정 정책 방향은. 재정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은. 공직자 미래창의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차오름' 운영 성과는. 산지천 남수각 복개구간 침수 예방 대책은.

제주 노후계획도시 추진 방향은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 제주 노후계획도시 추진 계획 및 방향은. 기성시가지 노후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은.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한 추진 계획은. 제주 민관협력의원 운영 조건 완화에 대한 견해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관련 용역 및 연구과제 추진 사항과 대응 방안은. 공공기관 민원차량 주차공간 확보 방안은.

2024년산 마늘처리 대책은

양병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정읍)

▲ 2024년산 마늘처리 대책과 농업용수 확보 방안은. 공설묘지, 무연분묘 활용 대책은. 수목장 활성화 및 운영 방법 개선 방안은. 영어교육도시 교통정체 해소 방안은. 알뜨르 평화대공원 국비 확보 기본 계획 용역 추진에 대한 견해는. UAM 버티포트 및 드론실증도시 구축 관련 알뜨르비행장 활용 가능성은.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문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지난 4월 15일 개회, 26일까지 열렸다. 19일과 22일 양일간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 질문이 진행됐다. 19일에는 정민구·임정은·현지홍·양용만·양홍식·강성의 의원이, 22일에는 양영식·송영훈·이경심·오승식·강충룡 의원이 교육행정 질문을 이어갔다. 자세한 교육행정 질문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전자회의록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다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도심 학교 활성화 방안은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

▲ 교육발전특구 지정 추진 상황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선정에 따른 제주특별법 교육특례 위축 우려에 대한 대안은.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한 교육청 방향은.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따른 교육청 대응 방안은. 원도심 학교와 소규모 학생의 교육권 확보 방안은. 학생선수의 상급학교 진학 연계 방안은.

도내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향은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

▲ 작은학교 현안에 선제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주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모델이 필요하다는 데 견해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구심 역할을 수행할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입장은. 한림여중과 한림중 통합 제안에 대한 견해는. 학령과 배경이 다양해진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정책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정보화 교육 및 교육환경 조성 추진 방향은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

▲ 미대여 드림노트북 사용 방안은. 디지털교육 역량강화 등 학교 정보화 관련 사업의 재정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은. 교육청에 증가하는 법률 행정에 따른 변호사 직위 현황은.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확대 방안은.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교육활동보호 대책은. 제주형 늘봄학교 운영위한 특색 사업 및 추진 방향은.

폐교 활용 현황 및 미활용 폐교에 대한 대책은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제주도내 폐교 활용 현황 및 미활용 폐교에 대한 대책은.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통한 활용 방안은. 성산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은. 해양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신설을 위한 계획은. IB 학교 추진 현황 및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지역 거점 교육기관으로서의 외국문화학습관 기능과 역할 강화에 대한 견해는.

학생 복지권 강화 및 대안 마련은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학생 복지권 강화 및 대안은. 교육청 소관 식물식재 현황 및 개선 방안은. 제주형 늘봄학교 추진 상황은.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운영 시 예측되는 문제점, 향후 계획은. 학원 교육 정책 미비에 따른 향후 기조는.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견해는. 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 안정화 대책은.

통합운영학교 지원 체제 강화 방안은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통합운영학교 확대 견해는. 통합운영학교 운영 개선 및 제도 도입 방안은. 학교복합시설로서의 학교 수영장 활용 극대화 방안은. 학교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대책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청소년 해양체험 교육 강화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활성화 방안은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

▲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정책 활성화에 대한 견해는. 경계선지능인통합관리지원센터 제안에 대한 입장은. 제주 학생 생태환경교육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제주형 IB 학교 운영 정책 제안에 대한 입장은. 학력격차 해소 방안은. 자전거 통합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견해는. 제주 서부지역 교육인프라 확충 방안은.

교육 주체 간 교육 활동 보호 방안은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

▲ 교권 침해에 따른 교육 주체 간 교육 활동 보호 방안은. 교권 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의향은. 학교복합시설 구축과 지역발전과의 연관성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은.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실 및 조리시설 현대화, 종사자 처우개편 등에 대한 견해는. 학교 운동부 활성화 방안은.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기능 강화 방안은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

▲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및 대책은. 지자체와 연계한 늘봄학교 추진 계획은. 유보통합 관련 지자체 간 협의를 위한 추진 계획은. 학생 비만율과 각종 중독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대안학교 신설 또는 중고 통합형 공립대안교육기관 설립 의향은.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은.

교육공무직 근무여건 개선 방안은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방안은. 급식지원 근무자 안전대책은. 조리실무자 결원에 따른 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이용자 요구 및 수요자 맞춤형 개설·운영 방안은. 개인정보 공개 또는 유출 등에 대한 학생 인권 침해 예방 대책은.

학교 체제 개편 추진 관련 입장은

오승식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

▲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이전', '평준화고 입학 정원 확대' 공약에 대한 방침은. 단성학교의 공학 전환에 대한 공론화 과정 및 향후 계획은. 특목학과 전환 방침에 대한 추진 방향은.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 제안에 대한 입장은. 늘봄학교 운영 현황 및 내실화 방안은. 교직원 증가에 대한 업무공간 확보 방안은.

위기 제주농업, 동반자적 노력 필요

강 봉 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농업인구 확대 유도 및 안정적 영농활동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 필요"

제주에서 1차산업은 2022년 기준 도내 GRDP 11.1%를 차지하고 있는 도내 경제의 주축산업이다. 특히 농업은 도내 전 지역에서 감귤과 다양한 월동채소를 재배하면서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제주농업은 농업인력의 감소, 농자재 대금 상승, 인건비 상승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첫째로, 농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인력 부족은 큰 문제이다. 특히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내 젊은 사람들이 육지부로 떠나면서 우리의 농촌은 고령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농업을 직업의 한 분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여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력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등의 인력확대 방안이 필요하다.

2023년 위미농협에서 처음 도입 운영되었던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둘째로, 제주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에 따른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이다. 1년 내내 농업인들이 땀 흘려 재배한 월동무, 양배추 등을 산지 폐기하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 농민의 자식인 나의 마음에도 답답함이 밀려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내에서의 품목별 적정 재배 기준을 마련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대체작물을 개발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다. 제주는 기후적으로 육지부와는 다른 온난한 기후환경을 가지고 있어 감귤을 비롯한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폭우, 가뭄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농작물의 피해와 농업 생산성이 낮아지는 문제로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작물 품종의 개발, 적절한 관리 기술의 도입 그리고 농업시설의 확충지원 등이 필요하다.

제주농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확대, 기술 지원, 자금 지원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농업인구 확대를 유도하고,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으로 제주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이뤄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차별 이제 멈춰주세요

안 진 숙
제주시
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 차별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 중 하나다. 바꿔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발전과 평등한 기회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한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우리가 가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장애는 사회의 자연스러운 일부다. 사람은 다양한 형태의 능력과 한계를 갖고 있다.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일환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장애를 지닌 사람들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길을 가다 또는 어느 곳에서 장애인을 만나면 당황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또한 장애인을 잠재적 도움의 대상으로 생각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도우려고 한다. 우리는 장애인을 도움의 대상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해야 한다.

장애인 차별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하는 업무와 장애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신체 건강' 조건을 내세우며 장애인을 취업에서 배제시키는 문구를 무의식중에 사용한다. 이는 고용 부문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이런 차별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멈추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들이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더불어,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반 구축으로 함께 만드는 장애친화적인 사회가 실현되길 바란다.

풍수해보험, 내일을 위한 현명한 준비

장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 주무관

1년에 13만원을 납부해서 2,000만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민이 2022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주택 피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준다. 주택은 물론, 온실과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어, 자연재해로부터 도민들의 생활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보험료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기본 70%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주택·소상공인 15%, 온실 12%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 15~18%만 납부하면 된다. 주택 면적 80㎡ 기준으로 보험료는 3만4,900원이지만 도민은 5,235원만 납부하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 경제취약계층에 대해 100%를 지원한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상담 및 가입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우리의 안전한 내일을 위한 가장 현명한 준비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우리가 모두 더 안전하고 행복한 내일을 맞을 수 있다.

제주중앙고, “의정 활동 직접 체험했어요”

지난 4월 4일 본회의장서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4월 4일 본회의장에서 제주중앙고등학교 2학년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을 진행했다.

1일 도의원으로 활동한 이들 학생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심사보고와 도정·교육행정 질문 및 답변, 조례안 찬·반토론 및 전자표결 등 의사진행에 참여했다.

특히 3분 자유발언에서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 문제와 학교 폭력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도의원과의 만남에서는 강동우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동부)이 자리해 “오늘 도의원 체험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자유로운 토론 자세를 배워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앞서 2024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참가 희망자를 접수한 결과, 17개팀·443명이 신청했다.

“제주도민의 삶, 다각적으로 접근”

계간「드림제주」봄호 나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의회 소식지 계간「드림제주」봄호(통권 42호)를 발간했다.

이번 봄호에서는 ‘다가올 미래, 준비된 인생’이라는 기획으로 청년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제주지역의 인구 문제와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다각적으로 접근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저출생, 고령화, 탈제주 사이에서 인구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고, 지역 청년의 삶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톺아봤다. 또한 지역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제공하며 살아가고 있는 ‘뉴실버세대’를 만나, 중장년층의 ‘n번째 삶’을 위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새로운 코너들도 눈에 띈다. ‘의회 막전막후’라는 이름으로 생생한 의회의 현장을 중계했다. 제주의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이 실제 의정 체험을 하는 시간을 기록했는가 하면 의제와 사안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발굴하는 의원연구단체의 그간 활동을 정리하고, 의회 내 소통을 더 원활히 이루게 하는 교섭단체를 소개했다. 특히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를 이끌고 있는 김경학 의장의 현장 소통을 정리했다. ‘현장’, ‘소통’, ‘공감’으로 정리되는 그간의 활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속기록에 없는 속기록’에서 장정언 제주도의회 제4대 전·후반기 의장을 만나볼 수 있다.

이충훈 김만희 신미옥 김선주

이충훈 비서실장, 서기관 승진

도의회, 4월 15일 임용장 수여식
사무관 3명 승진 임용 이뤄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4월 15일 의장 집무실에서 2024년 상반기 승진 의결자에 대한 승진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충훈 총무담당관 비서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승진 임용됐다. 이충훈 비서실장은 지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서귀포시 예래동장,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공기업팀장,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장 등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이뤄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승진 의결된 의사담당관 기록팀장 김만희 사무관, 공보관 미디어팀장 신미옥 사무관, 입법지원담당관 정책연구팀장 김선주 사무관에 대한 임용장 수여도 진행됐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부여됐다.

「2023년 비용추계 사례집」 발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3월 28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를 모은 「2023년 비용추계 사례집」을 발간했다.

비용추계는 의안이 의결돼 시행될 경우 소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액을 사전에 추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수반되는 비용추계 주요 사례와 함께 비용추계 개요 및 현황, 비용추계 관련 규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2023년에 실시한 비용추계 144건 중 주요 사례 53건을 선정해 해당 조례안의 내용, 재정수반 요인,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등을 자세히 담아 도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번 사례집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자료실-정책분석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김경학 의장은 “앞으로도 비용추계 사례를 지속 공유해 지방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